



메티에 라르® 아뜰리에의 탁월한 쟁세팅 기술력이 돋보이는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타임피스,

리베르소 원 코르도네 주얼리

1931년 리베르소가 탄생할 당시 우아한 아르데코 라인의 여성스러운 매력이 시선을 사로잡았고, 곧이어 특별히 여성만을 위한 새로운 버전의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의 여성스러운 측면을 지속적으로 탐구하여 파인 워치메이킹 코드와 수공예 장식을 결합했습니다.

예술적 표현을 위한 공간이 되어주는 리베르소의 양면 케이스는 워치메이킹에서는 유일무이한 것으로, 예거 르쿨트르의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Rare Handcrafts™ workshop) 아뜰리에 장인들이 수공예 장식 기술을 발휘할 기회를 선사합니다.

리베르소 원 코르도네 주얼리를 위해, 그랑 메종은 쟁세터의 놀라운 재능과 워치메이킹 컴플리케이션 기술을 결합하여 더없이 화려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실루엣이 돋보이는 새로운 리베르소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1930년대의 다양한 여성 시계에 코르도네(얇은 브레이드를 의미) 스트랩을 장착했습니다. 워치 스트랩의 리틀 블랙 드레슬라 할 수 있는, 이 심플한 블랙 코드는 아르데코 시대의 우아함을 상징하며, 1933년에 처음으로 리베르소에 장착되었을 때 최상의 하모니를 선보였습니다.

2021년, 리베르소 원 코르도네 주얼리는 이 절묘한 조합을 화려한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심플한 코드 스트랩을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구성된 유연한 브레이드로 변형한 뒤, 전체적으로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듀에토 케이스와 결합했습니다.



여성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양면 듀에토는 동일한 시간을 다르게 표현하는 두 개의 다이얼을 제공합니다. 매뉴얼 와인딩을 갖춘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44의 독창성은 각 다이얼의 핸즈를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기술력에 있습니다.

리베르소 원 코르도네 주얼리의 전면 다이얼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섬세한 골드 아라비아 숫자를 화이트 마더오브펠 베이스에 장식하고, 다이아몬드 세팅 브라켓으로 프레임을 더했습니다. 섬세한 골드 레이스로 둘러싸인 중앙의 기하학적 컷아웃은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의 눈부신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뒷면 다이얼은 매력적인 반전을 선사합니다. 옉스 배경에 장식된 다이아몬드 세팅의 골드 ‘태양 광선 패턴’이 중앙에서 뿔어 나가며 아워 마커를 그려냅니다.

케이스 전체와 브레이슬릿 부착물, 브레이슬릿 그리고 두 다이얼 모두 다이아몬드가 전체적으로 세팅되었으며, 와인딩 크라운은 리버스 세팅 다이아몬드로 찬란한 광채를 발합니다(총 7.84 캐럿의 다이아몬드 1,104 개). 케이스에는 그레인 세팅 기법을 선택했습니다. 다이아몬드들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은 골드 비즈로 촘촘하게 고정되어, 시계 케이스가 견고한 다이아몬드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1세기 여성성에 대한 찬사로 고안된 새로운 리베르소 원 코르도네 주얼리는 항상 예거 르쿨트르에 영감을 선사하는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랑 메종의 뛰어난 위치메이킹 노하우와 예술적 장인정신과 주얼리 제작 기술을 증명합니다.

기술 사양

리베르소 원 코르도네 주얼리

케이스 소재: 다이아몬드가 전체적으로 세팅된 핑크 골드

케이스 크기: 36.3 x 18mm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44 - 매뉴얼 와인딩, 38 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 시, 분(두 다이얼에 같은 시간 표시)



전면 다이얼: 마더오브펄, 다이아몬드, 아플리케 숫자

후면 다이얼: 오닉스, 다이아몬드 세팅 인덱스

브레이슬릿: 다이아몬드가 풀 세팅된 핑크 골드

다이아몬드: 1,104 개의 다이아몬드, 7.84 캐럿

제품 번호: Q3372301

리베르소 소개

1931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의 클래식 디자인이 된 타임피스인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는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 케이스의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0년이 흐르는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5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가 탑재되었으며, 메탈 소재의 빈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젤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탄생 90주년을 맞이하는 리베르소는 현대적인 스타일에 영감을 얻어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jaeger-lecoultre.com